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9월 중국 투자 전략

시장 위험의 하락

- 주식시장 진단: 기술주 중심의 반등 시현
- 핵심 이슈: 미-중 정상회담, 자동차 내수 Bottoming-out
- 시장 전망: 증시 안정화 구간, 시장 위험 감소

주식시장 진단: 기술주 중심의 반등 시현

- 8월 중국 주식시장은 반등세로 마무리되고 있다. 상해증시와 CSI 300은 각각 +3.2%, +0.5%를 기록하였는데 7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테크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8월 중국 증시의 반등은 AI 버블 논쟁의 완화와 경기 부양 기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리는 8.19~ 21일 북경 WRC 참관과 현지 전문가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중국 매크로는 2~3분기가 완만하게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이며, 현지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인 AI 투자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매크로 점검: 추가 재정 확대 기대 낮아져

-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연달아 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재정 집행이 예상되나 추가적인 재정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기고문을 통해 중국 경제를 더 이상 “성장 속도나 한 달 또는 한 분기 지표만을 보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성장률”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이슈: 미-중 정상회담과 자동차 내수 Bottoming-out

- 9월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다.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데탕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중 무역관계 복원(농산물 수입 확대, 희토류 수입 안정화, 미국 빅테크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중 합의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중국 자동차 내수 판매의 Bottoming-out 포인트이다. 이구환신 정책 기저 효과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전기차 교체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내수 경기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출시될 예정이다.

투자 전략: 시장 위험 감소

- 9월 중국 주식시장은 완만한 반등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중국 실물지표는 내수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나 3분기 중 경기 저점을 확인하고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차이나 테크의 기술적 조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현지의 AI 모델 기업과 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중국 AI 투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압도하며 Bottleneck 국면이 이어질 것임을 확인하였다. 중국 포트폴리오 키워드는 『① 실적 턴어라운드(Turn around), ② 병목(Bottlenecks), ③ 상용화(Monetization)』이다. 하반기 중국 실적 회복은 플랫폼 기업과 전기차 밸류체인이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나 테크의 경쟁력 강화는 꾸준히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주식시장 진단

기술주 반등

AI 버블 논쟁 완화

- 8월 중국 주식시장은 지지선을 확인하며 반등세로 마무리되고 있다. 상해 증시와 CSI 300은 각각 +3.1%, +0.5%를 기록하였는데 7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테크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7월 상승 폭이 컸던 홍콩H 지수는 8,400 포인트를 중심으로 약보합 수준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사가 예상했던 8월 증시 회복의 궤적과 일치하는 흐름이다.

8월 중국 증시의 반등은 AI 버블 논쟁의 완화와 경기 부양 기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 먼저,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견조한 AI 투자수 요가 확인되었다.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 고공 행진과 견조한 수요 예측이 주요했다. 우리는 8.19~ 21일 북경 WRC 참관과 현지 전문가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중국 매크로는 완만하게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이며 주요 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인 AI 투자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차이나 AI 모델과 휴머노이드의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7월 CXMT에 이어서 중국 휴머노이드 대표주자인 유니트리가 이번 달 상장되었다. 총 61억 위안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였는데,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8,000배를 넘어 과창판의 흥행 신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상장 첫날 공모가 150.8위안 대비 629% 폭등한 1,100위안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로봇틱스 상용화의 선도 주자로 발돋움하였다.

월별 주요 주가 추이

구분 (%)	'26년								연초 이후 (8.28일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상해지수	3.8	1.1	(6.5)	5.7	(1.1)	0.6	(5.6)	3.1	(0.3)
홍콩H	4.5	(4.9)	(5.5)	3.7	(3.0)	(10.3)	13.9	(1.4)	(4.8)
SMIC	5.5	(9.8)	(25.4)	39.8	15.1	9.6	(29.3)	10.9	(1.8)
알리바바	18.5	(15.5)	(16.7)	5.9	(4.1)	(23.2)	26.0	(2.7)	(20.2)
BYD	(7.0)	(1.7)	17.8	(2.2)	(6.6)	(17.1)	20.2	(3.6)	(5.5)
S&P500	1.4	(0.9)	(5.1)	10.4	5.2	(1.1)	(0.1)	3.0	12.9

자료: CEIC, 삼성증권

글로벌 주요증시 추이: 온건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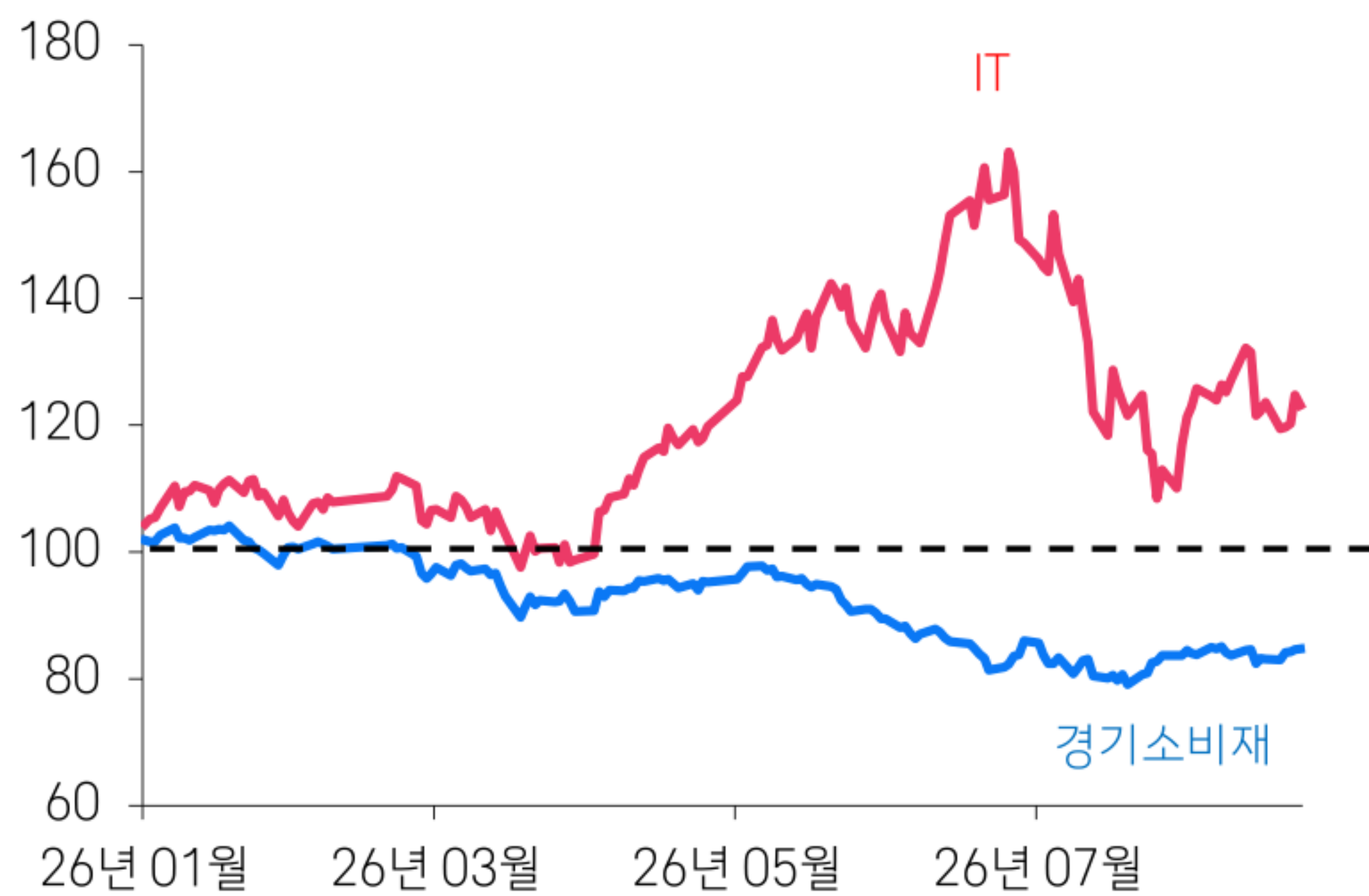
(지수화: 2026.01=100)



참고: '26년 8월 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8월 낙폭 과대 테크 주 반등

(25.12.31=100)



참고: '26년 8월 28일 기준
자료: Wind,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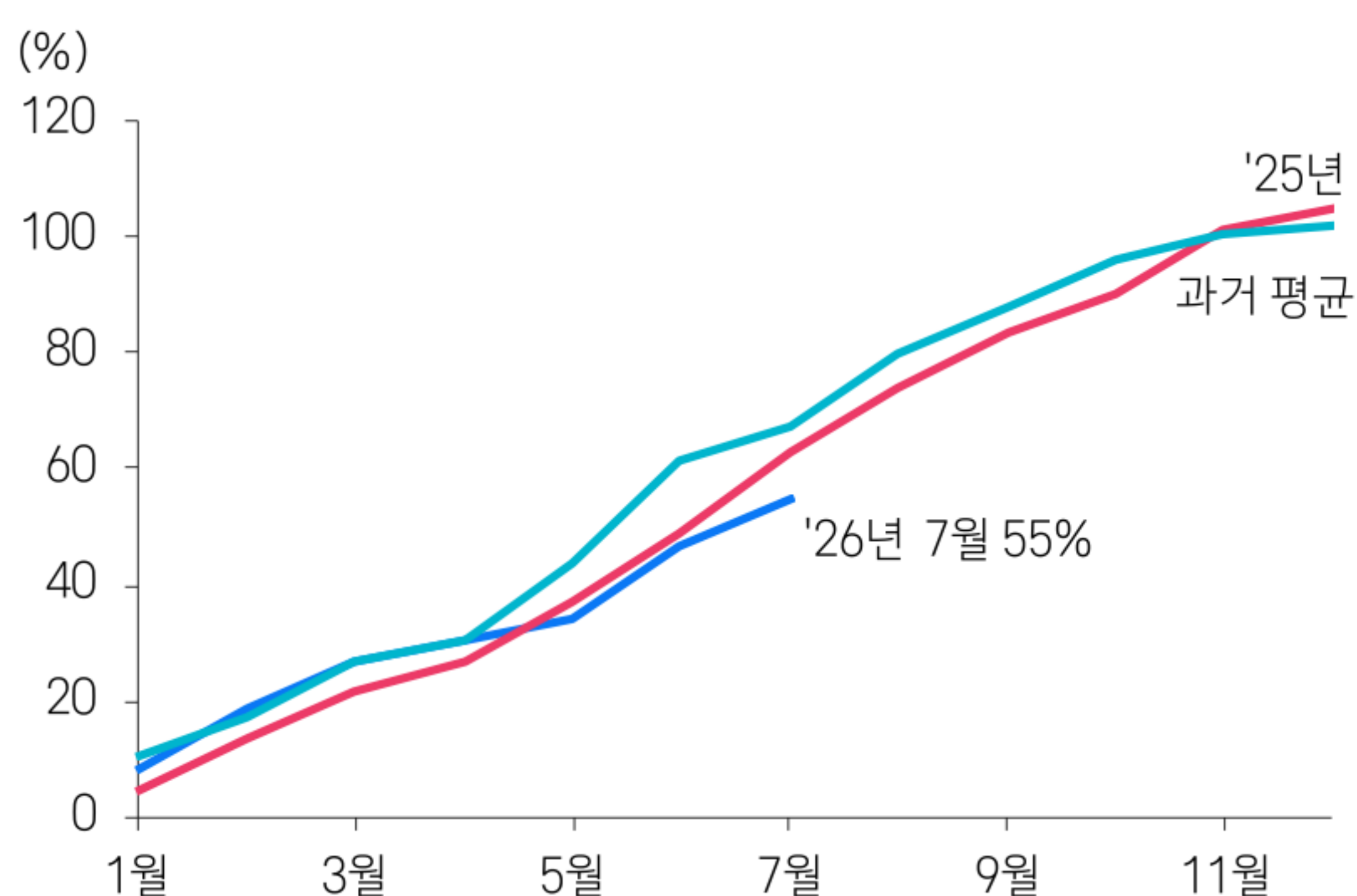
매크로 점검

추가 재정확대 기대 낮아져

예상보다 부진했던 7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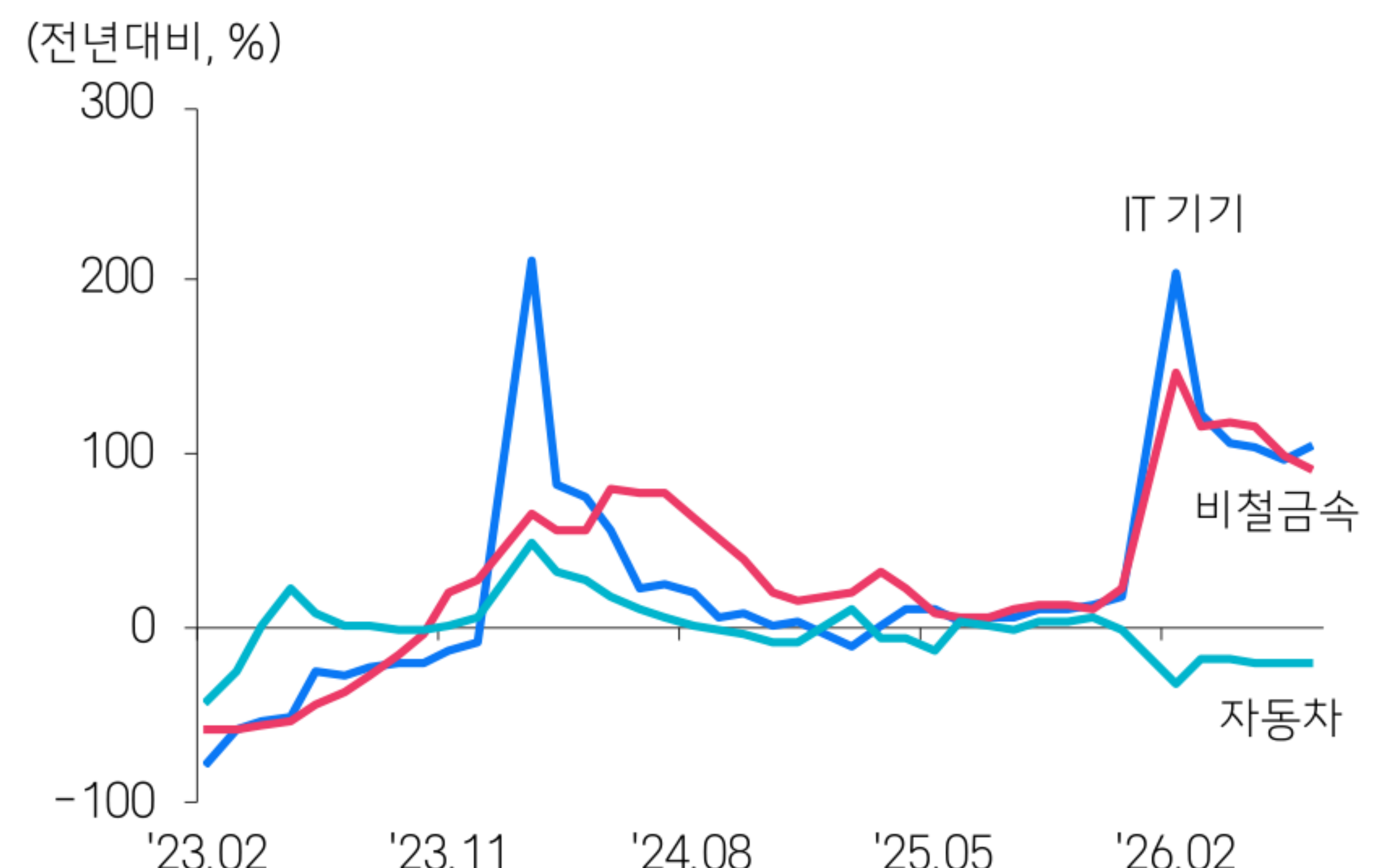
- 중국 7월 경제 지표는 대부분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부진했으며, 대외 수요(수출)은 견고한 반면 내수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7월 산업 생산(4.5%, 이하 전년 대비), 고정자산 투자(-6.7%, 연간 누적), 소매 판매(0.6%)는 모두 6월보다 둔화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 특히 내수(투자 및 소비)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7월 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전략 산업 품목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3.9%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주로 중국 주택시장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구환신 정책의 기저 효과와 기업 투자 및 정부 지출 감소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 중국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7월 지표가 부진했던 것은 폭우, 고온 등 기상 여건이 일부 작용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7월 중순부터 다시 강화된 점도 산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과 IT 제조업 생산이 견고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서비스 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1~7월 전년 대비 5% 증가)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부양 강화 방침도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주요 내수 부진 요인(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워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 아울러 산업별로도 차별화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업스트림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며,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IT 기기 제조업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7월 공업 기업 재무 데이터에서 원자재 제조업도 55.2%(이하 연간 누적)로 6월보다 둔화했지만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고, 비철금속 제련업 순이익은 91.8%에 달했다. 아울러, IT 기기 제조업의 경우 105.0%로 6월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20.4%), 문화체육용품(-17.5%) 등 소비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은 예년보다 소폭 더



참고: 양회에서 발표한 연간 발행 쿼터 대비
자료: 중국 재정부, WIND, 삼성증권

중국 업종별 순이익은 상이한 상황



참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기준. 연간 누적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경기 부양 의지 나타냈으나 강도는 제한적일 전망

-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연달아 회의를 소집하며 7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의 부양 방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 소집된 첫 번째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는 연간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발전개혁위(NDRC)도 인프라 투자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 특히, 최근 인민일보는 '중차이원(钟才文)'의 필명으로 4일 연속 기고문을 게재하며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중차이원이란 '중앙재경위원회의 글(中央财经委员会文章)'과 같은 발음으로 사실상 중국 지도부의 경제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며, 이번 발표는 7월 정치국 회의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내용들을 종합하면,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방지하고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추가적인 재정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기고문에서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를 더이상 "성장 속도나 한 달 또는 한 분기의 지표만을 보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질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성장률"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 수준의 경기 흐름 지속 시 추가 부양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존 재정 방안을 조속히 집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형세 변화에 따라 추가 정책을 발표할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성장 목표를 달성을 재차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성장 목표(4.5~5.0%) 하회 가능성이 예상될 경우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다.
- 투자 지표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기고문에서는 현재의 감소세를 되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현재 투자 정책의 핵심은 증가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의 질적인 측면과 종합적인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중국의 투자는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재정 집행으로 통신망, 전력망 등 '6대망' 인프라 투자는 개선될 전망이며, 산업 정책에 따라 주요 신흥 산업의 투자도 이어질 것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투자는 여전히 반도체 칩 병목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 이에 더해, 내수의 또다른 한 축인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급 측면을 강조했으며, 서비스 소비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반면, 상품 소비에 대해서는 일부 상품 소비는 이미 포화 또는 단계적 충족 상태에 근접했다면서 상품 소비에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반면, 전략 산업 육성은 앞으로도 핵심 목표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공신부에서도 최근 15.5개년 계획 기간 집중 육성할 산업을 재차 지목하면서 정책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기고문에서도 '반내권화'를 언급하며 일부 분야의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내권화'는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과는 다소 상충되며, 지도부의 핵심 목표는 산업 육성이라는 점과 내수 부진 상황을 감안하면 저가 경쟁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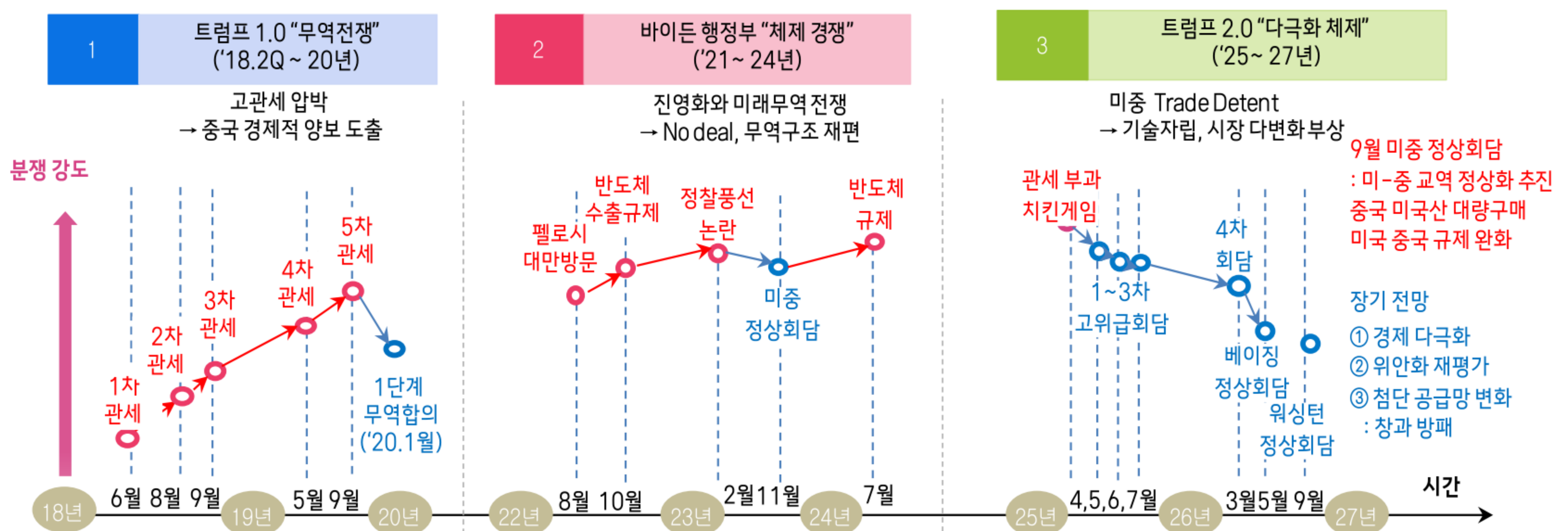
미-중 정상회담 전망

Trade detent 이슈

교역 정상화와 첨단 제조 규제 완화

- 9월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다.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데탕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중 무역 관계 복원(농산물 수입 확대, 희토류 수입 안정화, 미국 빅테크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중 합의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은 ① 미국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구매 확대, ② 무역이사회와 투자이사회 설립, 상호 관세 인하로 무역 확대, ③ 호르무즈 개항과 이란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 트럼프 2기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역학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18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 적자를 기반으로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도출된 바 있으나 8년에 걸친 미-중 분쟁 기간 동안 중국의 협상 능력이 강화되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7년 19.1%에서 올해 상반기는 10.1%로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의 농산물 구매력은 두 배 증가하였다. 더불어 희토류의 지배력 강화는 협상력을 지원하고 있다.
- Trade detent: 『위안화와 첨단 제조』**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교역 정상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미-중 무역 비중을 회복시키고 농산물/에너지로부터 첨단 제조,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스트 미중 분쟁의 국면에서 위안화 강세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주목한다. 우리는 위안화의 점진적인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와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15년 위안화 시장화 조치 이후 위안화 환율 밴드는 6.2~7.3위안/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중국 고립 정책이 중국의 국산화 촉진,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산업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등의 규제를 점차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15.5 산업 고도화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 첨단 제조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분쟁 경과와 향후 전망



자료: CEIC, 삼성증권 추정

자동차 내수 회복

이구환신 Peak-out

중국 전기차 턴어라운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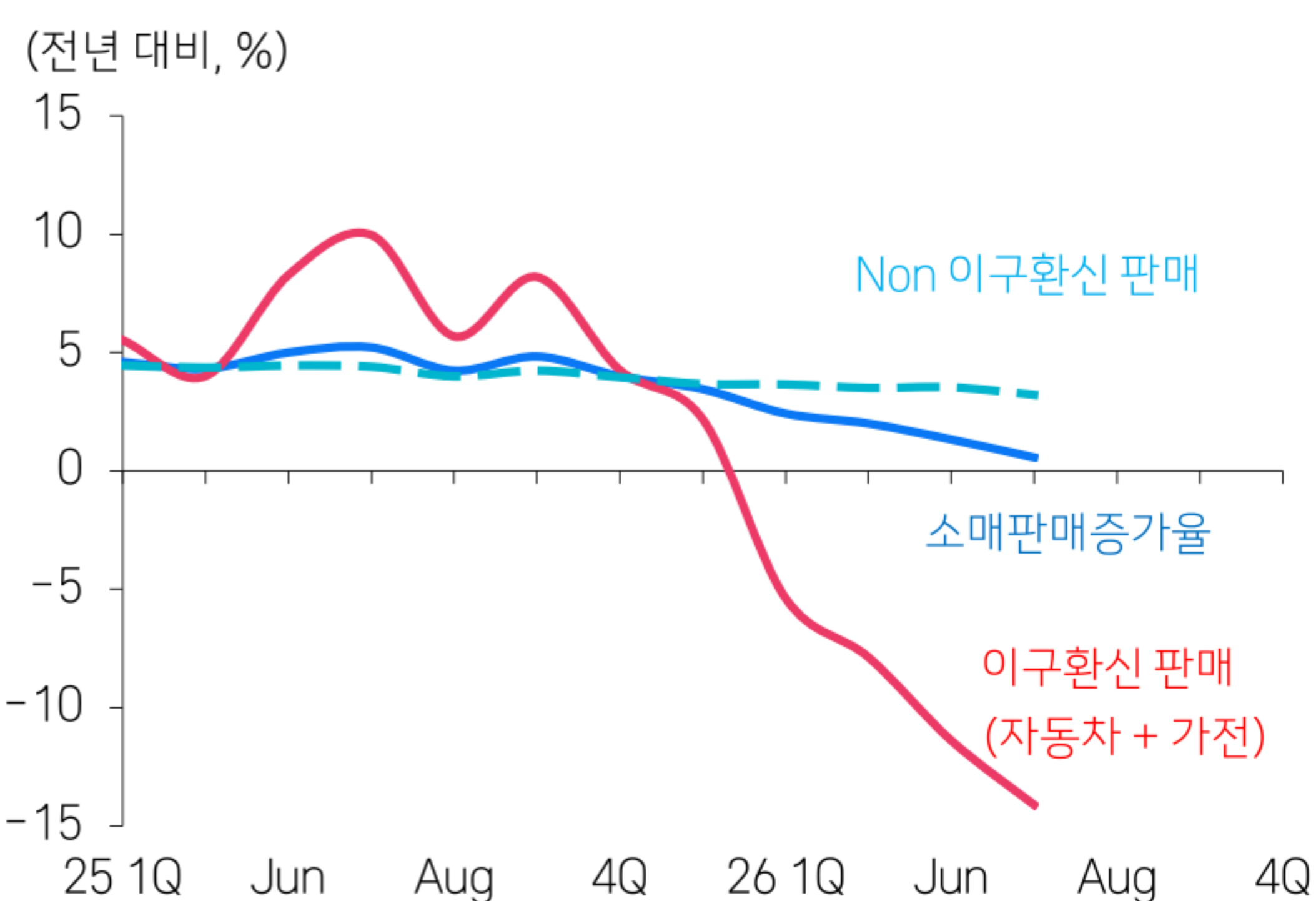
- 올해 중국 자동차 내수 판매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7월 중국 자동차 판매 금액은 전년 대비 -19.1% 급감하였다(판매 대수 1,760만대, 전년 대비 -3.5%).

8월 북경 현지 애널리스트 미팅을 통해서 자동차 내수 부진은 지난해 이구환신 보조금 축소 효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며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24년 3월 국무원이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행동 방안>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이구환신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구환신 지원 규모를 축소한 이후 4분기부터 자동차 판매는 (-)로 전환되었다.

- 9월은 중국 자동차 내수 판매의 Bottoming-out 관점에서 주목한다. 이구환신 정책 기저 효과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전기차 교체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내수경기 지원정책을 발표하였고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출시될 예정이다. 올해 중국 내수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내수 판매 대수는 2분기 이후 (+)로 전환되었다.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올해 7월 60%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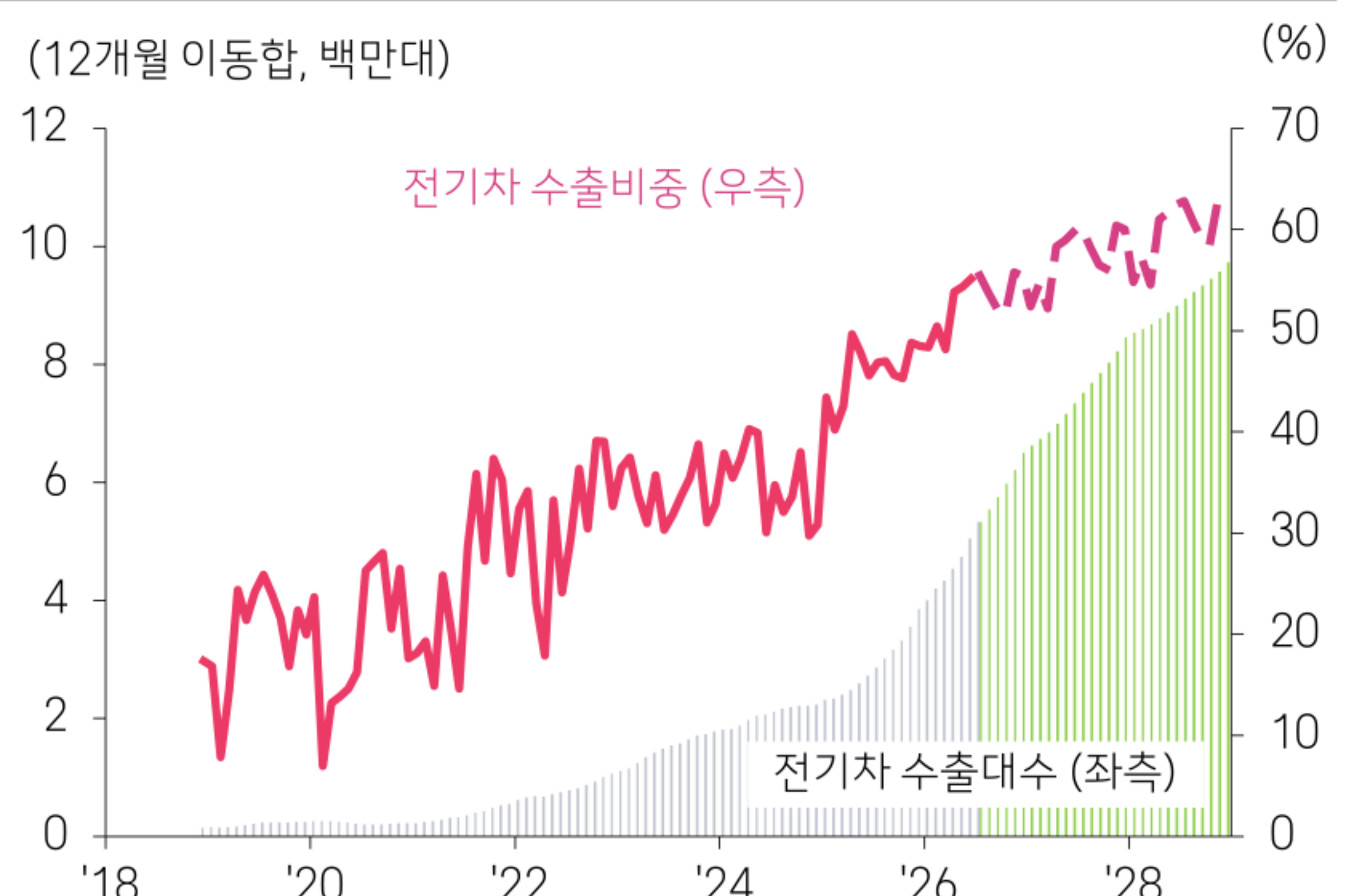
중국 전기차 수출은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는 1~7월 337만 대를 수출하여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77.7%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의 도약적인 해외 수출 증가세는 압도적인 ① 하드웨어 기술력, ②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③ EU와 신흥국 전기차 세대 교체에 따라서 동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전기차 해외 시장 확장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을 재편하는 강력한 <차이나 테크의 공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해 중국 자동차 수출은 1,200만 대, 전기차 수출은 65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7~'28년까지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수출 규모의 5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구환신 소매 판매 3분기 bottoming-out



참고: '26년 7월 말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중국 전기차 수출 고공 행진



참고: '26년 7월 기준, 7월 이후 데이터는 삼성증권 추정치
자료: Wind,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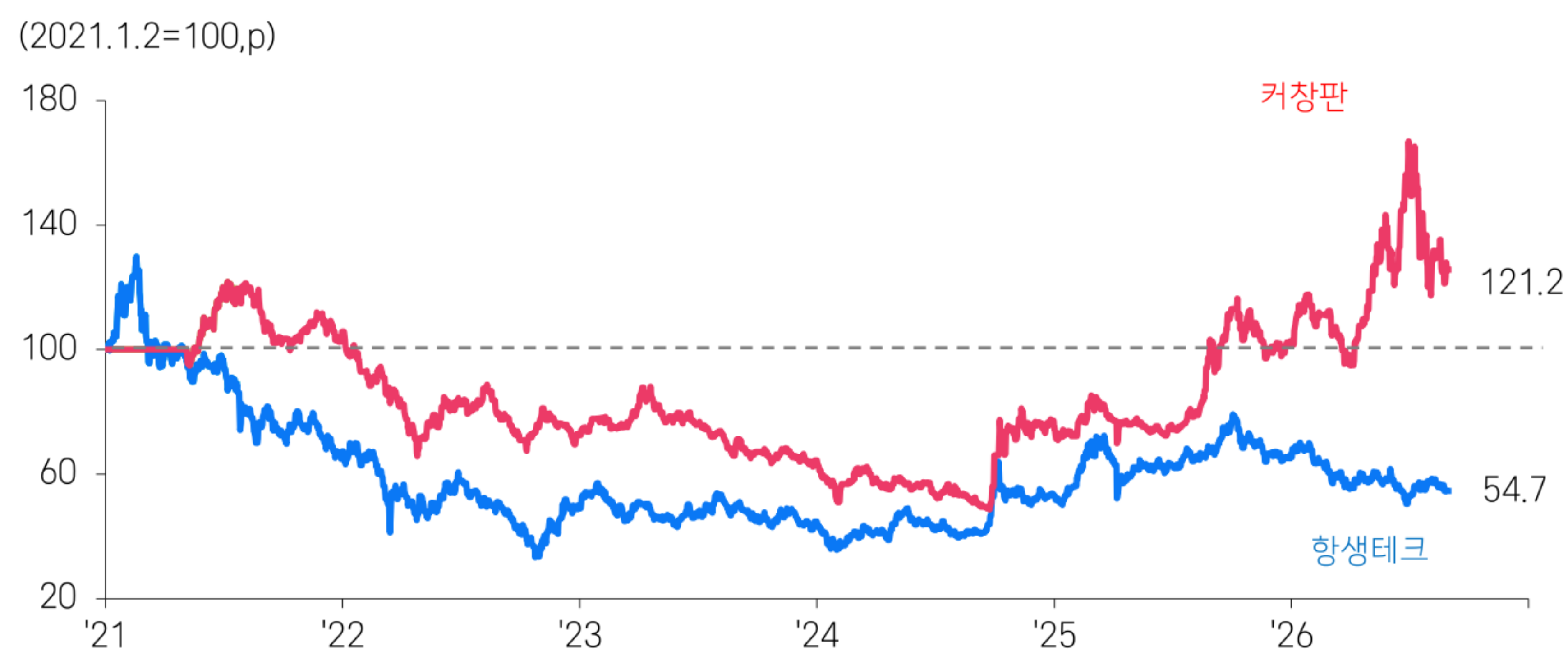
투자 전략

안정적인 흐름 전망

대내외 위험 감소

- 9월 중국 주식시장은 완만한 반등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8월 19일~ 21일 북경 WRC 박람회와 현지 경제 연구소, 증권사를 방문하여 중국 매크로와 차이나 테크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매크로와 중국 투자 전략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중국 실물 지표는 내수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나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요 둔화에 빠졌던 내수 소비는 이구환신의 높은 기저 효과가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가전과 자동차 소비의 부정적 효과는 저점을 통과하게 되었다. 수출 호조세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부양 정책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3분기 중 인민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정책 대응은 통화 완화와 전략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될 것이다.
- 둘째, 차이나 테크의 기술적 조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중국 현지의 AI 모델 기업과 경제 연구소는 중국 AI 투자 수요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제한적이었고(서부지역 데이터센터의 효율 제고에 초점) 내년은 올해보다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의 반도체 공급 증가에 비해서 수요 증가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9월 미-중 정상회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로 무역 데탕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중 무역 관계 복원(농산물 수입 확대, 희토류 수입 안정화, 미국 빅테크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중 미니 데탕트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 규제 완화를 주목한다.
- 중국 포트폴리오 키워드는 『① 실적 턴어라운드(Turn around), ② 병목(Bottlenecks), ③ 상용화(Monetization)』이다. 하반기 중국 실적 회복은 플랫폼 기업과 전기차 밸류체인이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밸류체인은 7월 전기차 침투율이 60%를 돌파하였고, 내수 판매가 (+)로 전환되면서 수출 호조세와 맞물려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관점에서 차이나 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꾸준히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팬데믹 이후 차이나 테크 지수 변화



참고: '26. 8. 28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요 증시 밸류에이션 및 실적 전망

구분	밸류에이션 (배)		EPS 성장률 (%)		
	Fwd PE	Fwd PB	'25년	'26년	26년 연초 예상
S&P500	19.7	4.7	13.7	32.8	15.6
MSCI ACWI	16.9	3.3	10.2	33.8	14.7
MSCI 신흥	10.0	2.0	10.5	71.5	18.2
MSCI 중국	10.8	1.3	(3.2)	13.6	12.7
상해종합	12.9	1.3	1.6	17.7	8.9
CSI300	14.0	2.0	9.7	21.1	10.6
홍콩H	9.5	1.0	(0.3)	5.3	2.8

참고: '26년 8월 말 기준

자료: 12개월 Fwd P/E는 Bloomberg, EPS 성장률은 LSEG Workspace, 삼성증권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주목

(지수화: 2020.7.2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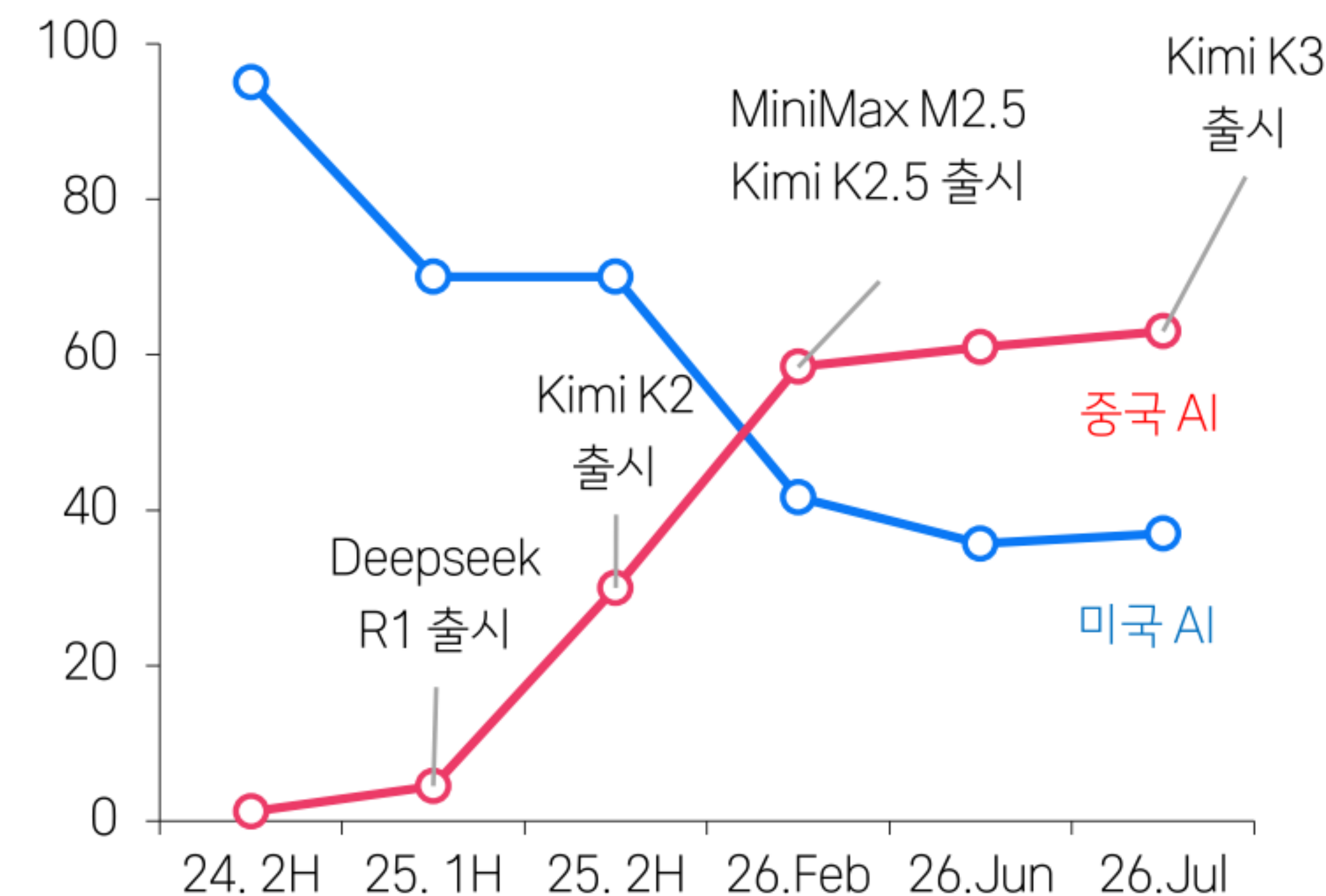


참고: '26년 8월 말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차이나 AI 토큰 점유율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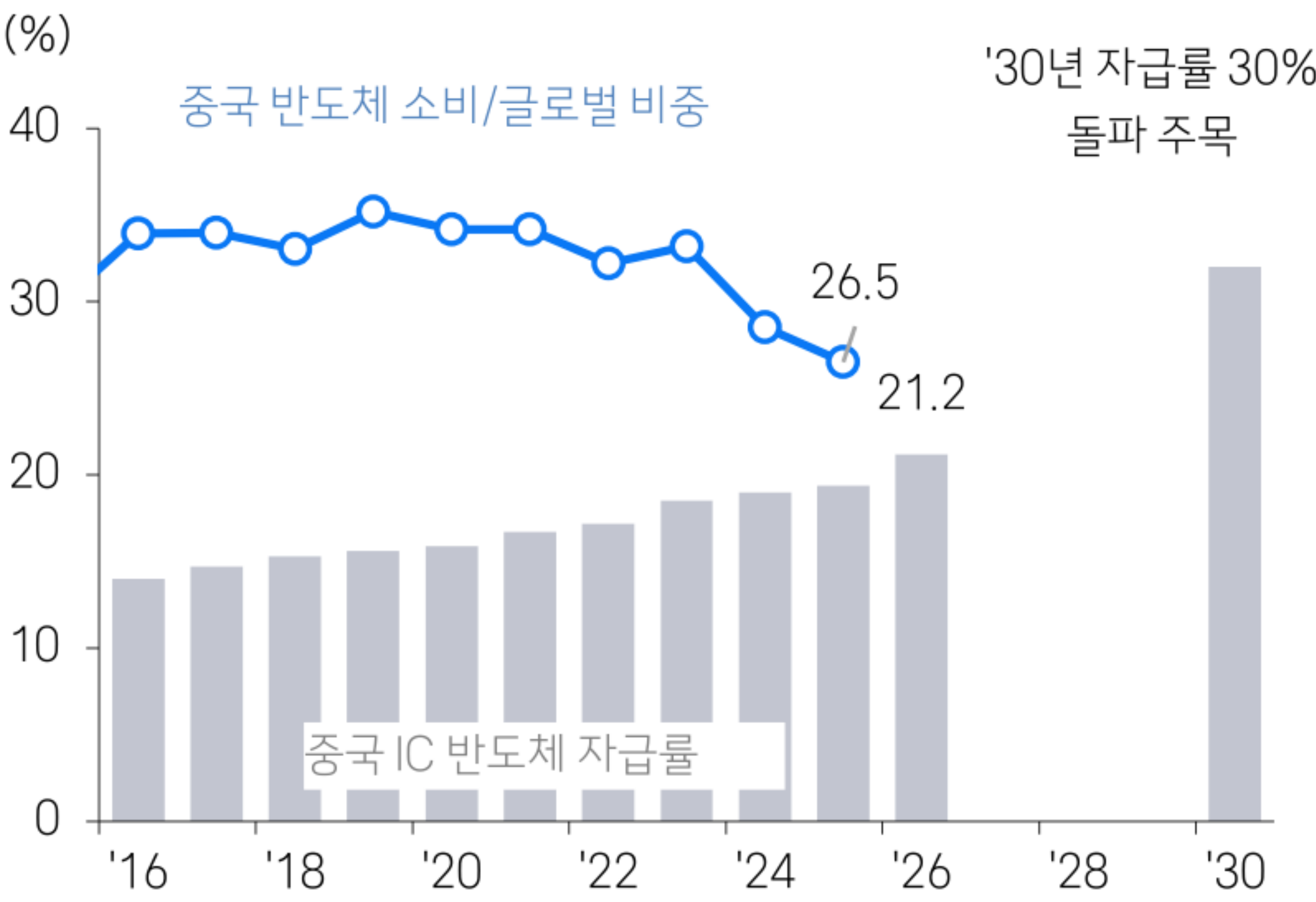
(글로벌 토큰 점유율, %)



참고: '26년 8월 말 기준

자료: OpenRouter, 삼성증권

중국 반도체, 공격적인 투자 확대 구간



참고: '26년 8월 말 기준

자료: WSTS, IC insight,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